

# 경기도, ESCO사업 활성화 앞장선다!

## 경기도, ESCO사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2011 경기도 ESCO순회설명회 성황리에 개최

경기도는 산업체의 비중도 높고, 거주하고 있는 인구도 많아 여러 측면에서 ESCO 잠재사업장이 월등히 많은 지역으로 꼽히는 지역이다. 경기도의 이러한 특성을 발판으로 지난 2월 경기도와 에너지관리공단, ESCO협회는 LED보급협회와 함께 경기도 내에서 ESCO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기 위하여 '경기도 ESCO사업 활성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지난 5월 말부터 6월까지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경기도 관내에서 에너지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2011년 경기도 ESCO순회설명회」가 개최되었다. 에너지사용자들의 지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그 현장을 소개한다.

저효율 노후설비를 초기 투자비용 부담 없이 교체하여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ESCO사업이 탁월한 에너지절감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민간에서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은 에너지 사용자의 정보 및 이해부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번 ESCO 순회설명회는 이러한 어려움을 감안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많은 에너지사용자들에게 ESCO사업을 알리고, ESCO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2011년 경기도 ESCO순회설명회는 ESCO사업 설명 및 주요사례 소개, 회계관련 법령 해석, 계약 및 지출 방법 등 ESCO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에너지사용자가 부딪힐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례를 들어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아울러 지원되고 있는 시설투자자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 시행취지 등 정책설명에 시간을 꾸며졌다.



## 스마트·그린빌딩 ESCO와 만나다.

(사)ESCO협회는 대전광역시, 충청남북도, 한국리모델링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대전, 충남북 지역 내의 모든 건물에 대한 녹색화 사업 추진에 적극 동참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재)대전테크노파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전광역시, 충청남북도가 선언한 관내 모든 건물에 대한 녹색화 실현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5월 대전테크노파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메타비즈, 씨밋디자인, 케이엠씨로보틱스, 자화전자 등 17개 기업, 목원대학교, 호서대학교, 충북대학교 등 3개 대학,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2개 연구기관, (재)충북테크노파크 등 총 24개 기관 및 기업과 한국리모델링협회 등 관련단체와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스마트·그린빌딩은 건축, 통신, 사무자동화, 빌딩자동화 등 4가지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통합해 첨단서비스 기능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이는 그린 IT기술이 바탕에 있는 것으로 그린 IT는 IT 부문의 녹색화(Green of IT), IT를 통한 저탄소화 실현(Green by IT), IT를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역력 강화(IT for Green) 등 각 분야의 포괄적인 IT 환경 변화를 위한다는 의미의 합성어이다.

협회는 본 사업을 계기로 개방형 SW기술, 그린·스마트 기술, 로봇실용화기술, 시스템 통합기술 등의 그린 IT기술이 에너지절약과 효율개선에 접목되어 그린·스마트빌딩, 그린홈, 스마트홈, U-city건설 등을 개발하고 확대하는 데 ESCO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많은 업체들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